

아빠 육아휴직 60% 증가,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 역대 최대

- “일하는 부모의 목소리가 정책이 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 및 타운홀미팅’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월 24일(화) 서울고용노동청(1층 청년 ON라운지)에서 제3기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과 타운홀미팅을 개최하고 정책 수혜자인 일하는 부모의 ‘현장 의견을 직접 들어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3기 현장 멘토단 출범과 함께, 일·가정 양립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책은 현장에서 완성된다, 일하는 부모가 직접 제안]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은 다양한 업종과 연령, 성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30~40대 일하는 부모 20명(남성 10명, 여성 10명)으로 구성됐다. 멘토단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 제도를 실제 활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이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공유 ▲직장 문화 개선 과제 발굴 ▲제도 확산 방안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발대식에서 김영훈 장관은 멘토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멘토단 참여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타운홀미팅에서는 “제도는 대폭 개선되었지만 조직 분위기와 인사 평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활용이 쉽지 않다”, “중소기업은 대체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전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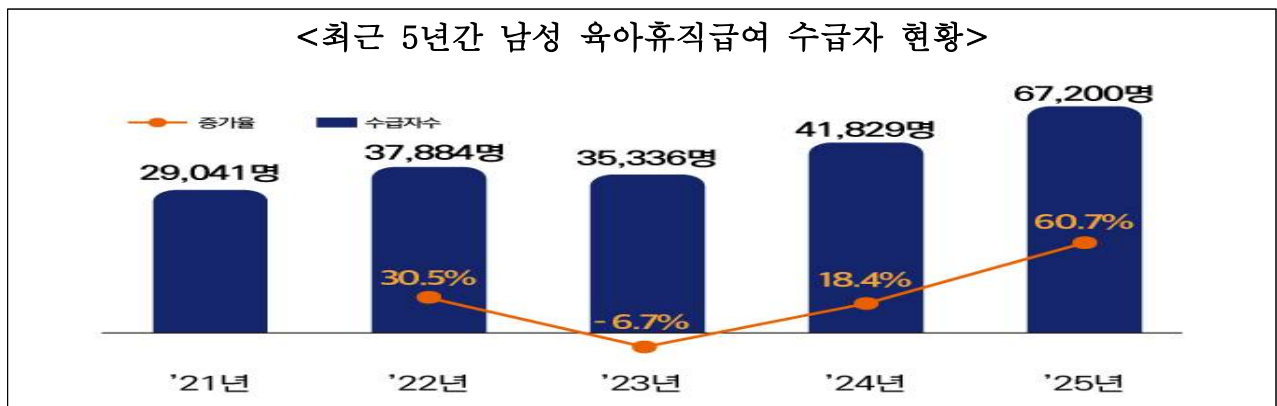
[아빠 육아휴직 60% 증가,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 역대 최대]

한편,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 최근의 제도개선으로 힘 입어 남성의 출산·육아 참여가 크게 늘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5년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60.7% 증가한 수치로 여성 증가율(29.1%)을 크게 웃돌았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년 대비 33.3% 증가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

구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유사산, 난임 포함)	배우자 출산휴가	합계
2021년	110,555명	16,689명	71,429명	18,270명	216,943명
2022년	131,084명	19,466명	74,310명	16,168명	241,028명
2023년	126,008명	23,188명	74,536명	15,797명	239,529명
2024년	132,535명	26,627명	79,368명	18,241명	256,771명
2025년	184,329명	39,400명	94,247명	24,412명	342,388명



[출생률 반등 이어가도록 정책 역량 집중]

고용노동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의 의견을 제도 설계와 집행 과정에 반영하고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계획이다.

< 배우자 3종 지원 세트와 단기 육아휴직, 올해 하반기 중 시행 >

먼저, 남성의 출산·육아 참여 확대를 위해 ‘배우자 3종 지원 세트’를 도입한다. ❶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❷현재 자녀 출생 이후에만 사용이 가능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❸남성 육아휴직도 자녀 출생 이후에만 가능하던 것을 임신 중인 배우자 돌봄이 필요한 경우까지 확대한다.

또한 일하는 부모가 돌봄 시간을 탄력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자녀 방학, 갑작스러운 휴원·휴교 시 1주 또는 2주 활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다.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월) 하였으며 시스템 개편 및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지원 강화>

아울러 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장에 지급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을 기존 120만원에서 상향하여 최대 140만원(30인 미만 사업장 월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 월 130만원)을 지원한다. 또 육아휴직 등으로 생긴 일을 동료가 나눠 맡고, 이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한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분담 지원금’을 월 최대 60만원으로 인상하여 중소기업의 인력 부담과 현장의 눈치 보기 문화를 완화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에 대한 교육, 홍보, 상담 등을 제공하는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사업’도 3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남성의 돌봄 참여 여건이 개선되면서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고, 중소기업 부담도 지속 완화되어 제도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라면서,

“출생률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일하는 부모가 계속 노동시장에 머무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를 지속 개선하는 한편, 누구나 부담 없이 일·가정 양립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과 문화 확산을 중점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현장 감담회 개요
 2. 장관 인사말씀
 3.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주요 통계
 4. 2026년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주요 내용

담당 부서	고용지원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일·가정양립지원TF	책임자	과 장	박정현 (044-202-7496)
		담당자	팀 장	이상전 (044-202-7962)
			사무관	김홍식 (044-202-7506)
			사무관	송주현 (044-202-7412)
			주무관	오영배 (044-202-7502)

□ 행사 개요

- 일시 : '26. 2. 24.(화), 14:00~15:00
- 장소 : 서울청 1층 청년ON라운지
- 주요 참석자
 - ▲ (노동부) 장관, 고용지원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 등
 - ▲ (멘토단) 육아기 자녀(12세 이하)를 둔 남녀 근로자 17명

□ 행사 순서

※ 행사전체 공개

시 간		주요 내용
14:00~14:03	3'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14:03~14:06	3'	■ 인사 말씀
14:06~14:25	19'	■ "워킹맘&대디 멘토단" 위촉장 수여
14:25~14:55	30'	■ 육아지원제도 사용 경험담, 애로 사항, 제도개선 아이디어 등 논의
14:55~14:57	2'	■ 마무리 말씀
14:57~15:00	3'	■ 단체 기념촬영 및 폐회

* 실제 발언과 다를 수 있음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이라는
쉽지 않은 과제를 현장에서 직접 실천하며,
이 자리에 멘토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무엇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지,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남아 있는지,
함께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경험 하나하나가
정책을 보완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작년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등
일·가정 양립 지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6만 7천명으로
전년 대비 60% 증가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포함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 수는
34만명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출생률도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하락을 멈추고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분명히 의미있는 변화입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환경은
일하는 부모가 경력을 이어가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며,
결국 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길입니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배우자 지원 3종 세트*와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 배우자 임신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허용

특히, 중소기업에서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함께 나누어 맡는
동료의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산단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 밀착형 홍보와 컨설팅을 통해
제도를 몰라서 못 쓰는 일, 부담돼서 못 쓰는 일이
없도록 더욱 촘촘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화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워킹맘&대디 멘토단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3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주요 통계

□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 '25년 상한액 인상, 육아휴직 기간연장 등으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남성에서 크게 증가

(단위: 명, %)

연도 \ 구분	합계	남성	여성
'21년	110,555	29,041 (26.3)	81,514 (73.7)
'22년	131,084	37,884 (28.9)	93,200 (71.1)
'23년	126,008	35,336 (28.0)	90,672 (72.0)
'24년	132,535	41,829 (31.6)	90,706 (68.4)
'25년	184,329	67,200 (36.5)	117,129 (63.5)

□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 중소기업 소속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도 '25년 107,559명으로 크게 증가 (전년 동기 대비 +42.8%)

(단위: 명, %)

연도 \ 구분	합계	중소기업*	대규모 기업
'21년	110,555	58,687 (53.1)	51,868 (46.9)
'22년	131,084	71,346 (54.4)	59,738 (45.6)
'23년	126,008	70,095 (55.6)	55,913 (44.4)
'24년	132,535	75,311 (56.8)	57,215 (43.2)
'25년	184,329	107,559 (58.4)	76,768 (41.6)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제조업: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하, 건설업: 300명 이하, 도·소매업: 200명 이하 등)

(단위: 명)

연도 \ 구분	합계	10인 미만	10인 ~ 30인	30인 ~ 100인	100인 ~ 300인	300인 이상
'21년	110,555	18,431	13,875	13,928	14,966	49,355
'22년	131,084	23,056	16,541	16,912	17,434	57,141
'23년	126,008	22,382	16,697	16,914	16,717	53,298
'24년	132,535	23,825	18,384	17,919	17,655	54,744
'25년	184,329	34,984	25,495	25,638	24,650	73,560

※ 분류 불능 등 포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

- '25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연장, 연령 확대 등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단위: 명, %)

연도 \ 구분	합계	남성	여성
'21년	16,689	1,632 (9.8)	15,057 (90.2)
'22년	19,466	2,001 (10.3)	17,465 (89.7)
'23년	23,188	2,415 (10.4)	20,773 (89.6)
'24년	26,627	3,270 (12.3)	23,357 (87.7)
'25년	39,400	4,935 (12.5)	34,465 (87.5)

□ 기업 규모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

-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는 '25년 24,11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61.2%

(단위: 명, %)

연도 \ 구분	합계	중소기업*	대규모 기업
'21년	16,689	11,089 (66.4)	5,600 (33.6)
'22년	19,466	12,698 (65.2)	6,768 (34.8)
'23년	23,188	14,939 (64.4)	8,249 (35.6)
'24년	26,627	16,718 (62.8)	9,907 (37.2)
'25년	39,400	24,110 (61.2)	15,290 (38.8)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제조업: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하, 건설업: 300명 이하, 도·소매업: 200명 이하 등)

(단위: 명)

연도 \ 구분	합계	10인 미만	10인 ~ 30인	30인 ~ 100인	100인 ~ 300인	300인 이상
'21년	16,689	5,325	2,614	1,857	1,718	5,175
'22년	19,466	5,659	3,265	2,226	1,904	6,412
'23년	23,188	6,210	4,029	2,733	2,420	7,796
'24년	26,627	6,380	4,539	3,382	2,966	9,358
'25년	39,400	8,987	7,064	5,263	4,351	13,735

※ 분류 불능 등 포함

'26년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주요 내용

제도명	제도 설명	개선 내용	'25년	'26년
 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에 따른 업무 공백을 대체인력으로 충원한 사업주 지원	지원금 상향	월 120만원	<30인 미만 사업장> 월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 월 130만원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 지원	지원금 상향	월 20만원	<30인 미만 사업장> 월 6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 월 40만원
 육아기 10시 출근제	근로자가 육아 사유로 1일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임금 삭감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주 지원	신설	-	<사업주> 월 30만원
 워라밸+4.5 프로젝트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감소 없이 주4.5일제 도입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한 사업주 지원	신설	-	<20~50인 미만 사업장> 1인당 월 30~60만원 *신규채용 시 1인당 80만원 <50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 사업장> 1인당 월 20~50만원 *신규채용 시 1인당 60만원
 일·생활 균형 네트워크	권역별 주요 산단·테크노파크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핵심 타겟으로 현장 밀착형 정보 제공, 상담 등 정부 지원 연계	신설	-	사업비 9.5억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만 12세(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급여 계산시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최초 10시간> 220만원 <나머지> 150만원	<최초 10시간> 250만원 <나머지> 160만원
 일·생활 균형 시스템	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활용 편의를 위해 시스템, 사용자 등 지원	지원대상 제도 확대	유연근무제, 근로시간 단축	시간단위 연차,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제도 등까지 확대